

국민통합위원회 청년포럼 「청년마당」, 광복절 기념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정화 활동

- 활발한 정책제안 활동과 순국선열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 전국 각지 청년 참여 -

- 지난 8월 10일 토요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(위원장 김한길) 청년포럼 「청년마당」 위원(이하 ‘청년위원’)들은 광복절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.
-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1기, 2기 청년위원 및 위원 가족과 지인이 함께 참여해 공통된 역사적 경험과 의미를 공유하며 세대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위해 추진되었다.
 - 이날 활동에 참여한 50여명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참배를 시작으로 지정된 묘역에서 비석을 하나하나 닦으며 태극기 꽃기와 조화 정리 등 묘역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.
 - 정유미 청년위원은 “이곳에 계신 분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.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특히 가족과 지인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활동의 의미가 배가 됐다.” 말하며 “앞으로도 적극적인 청년 정책 제안과 더불어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면 좋겠다.”는 소감을 전했다.
- 김한길 위원장은 “청년마당은 정부위원회의 청년자문단으로 가장 큰 규모로 청년 눈높이에서 정책을 제안하고, 청년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.”며 “바쁜 일정 속에서 국민통합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모습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청년과 함께하는 국민통합위원회가 되겠다.”고 강조했다.
- 「청년마당」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인 청년 100명이 국민통합위원회가 다루는 의제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소통 통로이자 청년주도 공론화 참여기구이다.

- 청년마당은 2기 구성('24.4.5.)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**241건의 정책 제안과 분과별* 18회 이상의 회의**를 통해 청년들이 처한 문제를 논의하고 **현실적인 방안 제시**하며 청년 자문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.

* 3개 분과: 경제·계층, 정치·지역, 사회·문화

- 이번 활동 이후 청년위원들은 청년의 관점에서 본 **지역주의, 계층과 세대 등 국민통합의 저해 요인**에 대해 논의하고 **일상생활 속 포용과 상생**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주제로 **청년마당 정기회의**를 진행할 예정이다.

담당부서	국민통합지원단 기획총괄담당관 청년팀	책임자	팀 장	유 현 경 (02-2100-3463)
		담당자	사무관	김 수 현 (02-2100-3423)

참고

국민통합위원회 청년포럼 「청년마당」 사회공헌활동 사진



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

청년포럼 청년마당 사회공헌활동

현충원 묘역정화

우리의 마음이 닿는 곳, 영웅의 심터를 가꿉니다.

일시 2024.8.10.(토) / 14:00 ~ 17:00

대상 청년마당 1기·2기, 위원 가족·지인 등

장소 국립서울현충원(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)

